

# 정보와 어순

고 경 환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 차 례

1. 서 론
2. 문미 초점과 문미 중점의 원칙
  - 2.1 태의 변화
  - 2.2 보 어
    - 2.2.1 일항 타동사
    - 2.2.2 이항 타동사
    - 2.2.3 복항 타동사
  - 2.3 존재문
  - 2.4 복합 명사구
  - 2.5 John is easy to please
  - 2.6 전치와 도치
    - 2.6.1 전 치
    - 2.6.2 전치와 도치
3. 결 론

## 1. 서 론

인간은 언어(말이나 글)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달하고 또한 타인의 말이나 글을 듣거나 읽으므로써 직·간접적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일정한 어순으로 연결된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문이나 문의 연속체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문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어순으

## 2. 인문학연구

로 이루어지지만, 그 어순이 언제나 고정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개별적인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문을 이룰 때, 거기에는 어떤 화석화된(fossilized) 어순이 존재하는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어순에 다소의 변화가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정보,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화·청자(또는 필자와 독자)에게 공히 알려진 것인가, 아니면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로 등장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미리 밝혀두지만, 이 논문에서는 어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법적 범주들을 다루게 되기는 하지만, 이 논문이 어디까지나 어순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법 범주를 보다 상세히 다루는 것은 논외로 한다.

## 2. 문미 초점과 문미 중점

문과 문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일정한 담화(discourse)가 이루어질 때, 담화의 일부인 하나하나의 문은 구정보(old/given information)와 신정보(new information)가 결합된 정보의 구조를 갖는다.<sup>1)</sup> 구정보는 담화 내용 중에서 이전에 언급되었거나 아니면 상황적 맥락에 의해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며, 신정보는 청자가 모르고 있다거나 또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화에 있어서는 구정보를 문두에 먼저 제시하고 문미에는 신정보가 되는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두에 놓인 구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주제가 되

---

1) 신정보와 구정보를 각각 초점(focus)과 전제(presupposition)라고도 한다. -- Sentences have an **information structure**. This means that the information they convey can be characterized as either old (known, presupposed) or new. The new information is called the **focus**, the old information is the **presupposition**. -- Declerck(1994: 20). see also 박근우(1991: 123ff).

며, 이것을 담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담화가 시작된다.<sup>2)</sup> 반면에 문미에는 담화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정보를 배치하여 이를 문미 초점(end focus)을 받도록 한다.

문미 초점의 원칙과 더불어 담화에 있어서는 문미 중점(end-weight)의 원칙이 작용, 이것이 어순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문두에는 되도록 짧고 간단한 구조를 가진 요소를 배치하고, 반대로 문미에는 문두에 놓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요소를 배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부 과대(top-heavy) 현상을 막아 문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감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문미 중점의 원칙은 말하자면 평형추(counterweight) 역할을 하는 장치인 것이다(cf. Ek & Robot, 1984: 44).

## 2.1 태의 변화

다음의 예를 먼저 보기로 하자.

- (1) a. My sister-in-law made these tablemats.
- b. These tablemats were made by my sister-in-law.

(1a, b)는 태의 변형이라는 문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동일한 명제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sup>3)</sup> 그렇다고 어떤 담화적 상황에서든지

---

2) A sentence has not only a grammatical and a semantic structure, but also a thematic one: the sequence in which information is conveyed. This usually takes the following form: first, items known to the speaker and hearer are mentioned, creating a mutual basis for the hearer to receive unknown and new items of information, or those which have escaped him or her. Since speech is situated in time, the conveying of information is tied to its linear structure. This is reflected grammatically in the word-order rules of a language, and these have, to a large extent, become fixed in English. -- Erdmann, Peter(1990), *Discourse and Grammar: Focussing and defocussing in English*, pp. 60-61.

3) 능동태와 수동태의 변형 관계는 항상 1:1의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능동태 문과 수동태 문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항상 의미상의 차이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언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1a)는 my sister-in-law를 주제로 삼음과 동시에 these tablemats를 신정보로 삼아 여기에 문미 초점을 두는 경우의 형태인 반면, (1b)는 these tablemats를 문의 주제로 삼고 my sister-in-law를 신정보로 제시하여 여기에 문미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의 문형이다. 그러므로 Who made these tablemats?와 같은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1b)는 적절하지만, (1a)는 신정보에 해당되는 요소인 my sister-in-law가 구정보가 놓여야 할 문두의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문의 문법성을 떠나 담화의 일반적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이 매우 희박하다. 이와 같은 점을 의미론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태의 변형에 있어서 agentive NP와 patient NP 중 어느 요소가 구정보로서 주제가 되며, 어느 요소가 신정보로서 문미 초점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어순이 결정된다.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명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을 수동태로 나타낼 것인가 능동태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은 문의 연속체에서 어떤 내용이 신정보이고, 또 어떤 내용이 구정보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점이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다음 예에서 고딕 부분은 전후 맥락으로 보아 구정보이기

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I can do it.

\* It can be done.

Will you respray my car?

\* Will my car be resprayed?

Few people read many books.

\* Many books are read by few people.

Beavers build dams.

\* Dams are built by beavers.

또 다음과 같은 문에는 각각 이에 대응하는 능동태 문과 수동태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Our solar system was formed billions of years ago.

... (Somebody/Something) formed our solar system billions of years ago.

He resembles his grandfather.

\* His grandfather is resembled by him.

때문에 문두의 주어 위치에 놓이고, 반대로 신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미에 놓여 동작주를 나타내는 전치사 by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

- (2) You can see the marks on the wall where our pictures used to hang. **These pictures** have now all been sold.
- (3) As a first step we have made two assumptions: that the Theme of a clause consists of just one structural element, and that **that element** is represented by just one unit : one nominal group, adverbial group or prepositional group.
- (4) Later, many temples were built in Koguryo to propagate the teaching of the Buddha. Gradually, **Buddhism** was accepted by the common people in the course of its syncretism with the native religion of shamanism.

또 다음과 같은 예를 비교하여 보자.

- (5) a. **Most of the radical and left-wing politicians in the country** mistrusted the President.
- b. The President was mistrusted by **most of the radical and left-wing politicians in the country**.

(5a)의 주어 부분(Most ... in the country)은 술부(mistrusted the President)보다 길고 그 구조가 복잡하다. 이러한 어순을 가진 문은 영어에서는 다소 어색하기 때문에 이를 (5b)와 같은 수동태 구조로 바꾸게 되면 결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미 중점의 원칙에 부합하여 자연스러운 문이 된다. 더욱이 담화의 장면에 언급되는 새로운 참여자(participant), 즉 신정보를 구정보보다 더 상세히 묘사하고 규정지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에서 주어는 짧은 명사구나 대명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Downing & Locke, 1992: 253). 이와 같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6) The front seats were filled by **members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 (7) She was greeted by **supporters protesting that Reagan had betrayed his allies.**
- (8) I was annoyed by **Mary wanting to tell everybody else what to do.**
- (9) Anyone who has not attended a large college football game has missed one of the most colorful aspects of American college life. Between the two halves of the game, the playing field is taken over by **the musical bands of the rival institutions, which take turns executing intricate marching formations as they play their instruments.**

이와 같은 문에서 동작주(agent: 즉, 논리적인 주어)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단순히 그 길이가 길고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정보로서 문미 초점을 받는 것이라고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2.2 보어

전통적으로 보어(complement)<sup>4)</sup>란 주격보어와 목적보어를 뜻하는 것이지만, 요즈음에는 동사의 뜻을 보충해서 문을 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를 지칭한다. 따라서 타동사는 다음 표에서 보듯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보어를 갖는다.

---

4) complement: (grammar) a word or phrase (esp. a noun or an adjective) that follows a verb and describes the subject of the verb --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cf. complement: a word or phrase added to a verb to complete the predicate of a sentence. -- *The Oxford Encyclopedic English Dictionary*.

타동사	{	일항 타동사: 목적어
		이항 타동사: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복항 타동사: 목적어 + 목적어 속성 목적어 + 부가어

### 2.2.1 일항타동사

일항 타동사(monotransitive verbs)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한 개의 보어만으로 완전한 문을 구성하게 되지만, 많은 경우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수의적 부가어(optional adjunct)로서 부사구나 전치사구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경우에 목적어가 부가어 앞에 놓이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담화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 (10) a. She presented *before the council* **a plan for redistributing the land**.  
 b. She presented **a plan ... the land** *before the council*.
- (11) a. They brought *into my room* **the robe I had asked for**.  
 b. They brought **the robe ... for** *into my room*.
- (12) Perhaps it will be helpful if I share *with you* **some of my influences and considerations on this matter**.
- (13) Korean temple artists inherited *from China* **a tradition that the ox turned white gradually as the novice became enlightened**.
- (14) Fronting is the term we apply to the achievement of marked theme by moving *into initial position* **an item which is otherwise unusual there**.

이처럼 목적어와 부가어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목적어가 부가어의 뒤로 이동하는 것은 신정보로 등장한 목적어가 문미의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문미 초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문미 중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양태부사(manner adverbs)는 그 자신이 수식하는 동사 뒤에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오는 경우도 많다.

- (15) a. John has answered the questions **intelligently**.  
 b. John has intelligently answered **the questions**.  
 (16) a. The coffin was lowered slowly **into the ground**.  
 b. The coffin was lowered into the ground **slowly**.  
 (17) a. This business has failed **completely**.  
 b. This business has completely **failed**.

Emonds(1976: 157-58)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각 쌍의 문에서 양태부사가 동사 앞에 놓이느냐 뒤에 놓이느냐 하는 것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고, 다만 문의 초점 요소, 즉 어느 요소가 신정보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따른 차이이다. 그렇다고 이와 유사한 다른 경우에도 의미상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항 타동사 중에는 이른바 구동사(phrasal verbs)라는 것이 있다. 구동사는 전치사를 수반한 동사(prepositional verbs) 및 전치사를 수반한 구동사(prepositional phrasal verbs)와 더불어 다어동사(multi-word verbs)라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blow up, break down, bring up, call off, give out, give up, look up, rule out, take back 따위와 같이 어휘적 동사(lexical verbs)에 부사적 불변화사(adverbial particle)가 첨가되어 의미와 기능면에서 한 개의 동사와 마찬가지로 쓰인다.

구동사가 타동사적으로 쓰여 명사구(명사를 중심어로 하는)를 목적으로 수반하게 되면 그 목적어는 불변화사 앞 또는 뒤에 놓인다.

- (18) They broke { (a) down **the door**.  
 (b) **the door** down.  
 (19) Let's take { (a) back **the glasses**.  
 (b) **the glasses** back.  
 (20) They called { (a) off **the meeting**.  
 (b) **the meeting** off.



(18a-20a)에서처럼 문미에 놓인 명사구는 신정보로서 문미 초점을 받게 되며, 반면에 (18b-20b)에서와 같이 불변화사가 문미에 놓이면 이것이 문미 초점을 받게 되어 동사적 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Downing & Locke, 1992: 333). 그러나 목적어가 긴 명사구이면 그것은 문미에 놓여 문미 초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므로써 결국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긴 공백(gap)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21) He *rang up* all the friends he had made on the Mediterranean cruise the previous summer.  
cf. \*He *rang* all the friends he had made ... *up*.

한편 구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로 실현되면 그것은 항상 구정보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 때문에 그것은 문미 초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불변화사 앞에만 놓이게 된다. 다만 (23b)의 경우처럼 대명사로 실현된 목적어가 문에 나타난 다른 요소와 대립적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문미에 놓일 수 있다.

- (22) The traffic police pulled **him** up for speeding.  
(23) a. They ruled **him** out.  
b. They ruled out **him**, but not **Tom**.

### 2.2.2 이항 타동사

다음 예에서처럼 give, deny, lend, owe, buy, make, show 등 이른바 이항 타동사(ditransitive verbs)들은 보어로서 두 개의 목적어, 즉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24) a. We've given **the children** bicycles.  
b. We've given bicycles **to the children**.  
(25) a. She made **all the family** a good paella.  
b. She made a good paella **for all the family**.

이 두 개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의 어순으로 놓이지만(24a, 25a), 이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신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문미의 위치에 놓여 초점을 받는 것이 담화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므로 (24a, 25a)는 각각 직접목적어인 bicycles와 a good paella를 신정보로 삼을 경우의 문 구조인 반면, (24b, 25b)에서는 각각 간접목적어인 the children과 all the family가 신정보 역할을 하고 있다.

간접목적어가 문미로 이동하여 초점을 받는 경우에는 동사에 따라 전치사 to 또는 for를 수반하게 된다.<sup>5)</sup> 만약 to를 수반했을 때 그 의미는 간접목적어가 물리적/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지만, for를 수반했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26)은 (26a)와 (26b) 중 어느 하나의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6) John bought the book **for me**.

a. John bought it for me(i.e. he acted on my behalf)  
because I didn't have time to buy it myself.

[proximity]

b. John bought it for me because my birthday was  
coming up and he wanted to give me a gift.

[benefactive]

그러나 John bought me the book.은 오직 한 가지로만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예는 어떤 특정한 맥락을 전제로 삼지 않았을 경우에 두 개의 목적어 중 어느 것도 신정보로서 문미에 놓여 초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맥락이 주어졌을 때에는 담화상 어느 하나만 자연스러운 대답이 된다.

5) bring, read, write 등 일부 동사들은 해석에 따라 to 또는 for를 수반한다:

bring it to me/read it to me/write it to me

cf. bring it for me/read it for me/write it for me

따라서 for를 사용했을 때에는 '나를 대신해서 어떤 것을 해주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27) What did you give Mary?  
 a. I gave Mary **a bunch of roses**.  
 b. I gave **a bunch of roses** to Mary.
- (28) What did you bake Mary?  
 a. I baked Mary **a cake**.  
 b. I baked **a cake** to Mary.

(27)와 (28)의 물음에는 간접목적어(Mary)가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에서 Mary는 자연스럽게 구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미에 놓일 수 없고, a bunch of roses와 a cake이 각각 이 물음에 대한 신정보가 되는 것이므로 문미에 놓여 초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바로 이러한 원칙에 어울리는 대답은 (27a)와 (28a)이며, (27b)와 (28b)는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지 못한다.

또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Speaker A: Would you lend me **your car**?

Speaker B: I can't. I've already promised to lend

- { (a) **it** to Harvey.  
 (b) \*Harvey **it**.

Speaker B의 대답에서 인칭대명사 it은 Speaker A의 말에 나타난 your car를 대신한 것이다. 따라서 it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명사구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문미에 놓여 초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있어서 (a)에서처럼 문중에 놓여야 한다.

간접목적어가 전치사구, 분사절, 또는 관계사절 등의 후위 수식을 받으므로써 직접목적어보다 길고 따라서 그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에도 간접목적어가 문미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 (29) She wrote a letter to **the principal of her son's school**.  
 (30) I sent my article to **the editor of the Chicago Times**.

- (31) I've just been out buying a wedding present for a **friend of mine who is getting married.**
- (32) She always makes coffee for **anyone who visits her.**

### 2.2.3 복항 타동사

(33-34)처럼 목적어와 목적어 속성(object attribute)을 수반하거나, (35-36)처럼 목적어와 부사적 보어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동사를 복항 타동사(complex transitive verbs)라 한다.

- (33) This makes the novel very difficult to read.
- (34) The referee proclaimed him world champion.
- (35) John put the bottle on the table.
- (36) We'll place the wicket here.

복항 타동사는 이들 예에서처럼 그 목적어로서 짧은 명사구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고 복잡한 명사구나 심지어 부정사절이나 that-절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목적어는 문미 초점이나 문미 중점의 원칙에 따라 문미로 외치된다. 더욱이 목적어가 부정사절이거나 that-절이면 외치가 필수적이며, 이런 경우에 원래의 목적어 자리에는 흔적(trace)으로서 it을 둔다.

- (37) Design has made *graceful* **many of our everyday properties, from streamlined locomotives to fountain pens.**
- (38) He had called *an idiot* **the man on whose judgment he now had to rely.**
- (39) He considered it *important* **to explain his reasons.**
- (40) I looked upon it *as very natural* then **that the world of letters should have attached no great importance to my work.**
- (41) The ambitious lady put it into her husband's head **that he should take the king's pace.**

부정사절이나 that-절의 경우와 달리, 동명사절은 문미 초점이나 문미 중점을 두는 경우가 아니면 필수적으로 외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명사절이 외치되려면 *easy, exciting, dull, irritating, nice, pleasant, regrettable, useless, wonderful, wrong, fun, no good/use* 따위와 같이 진술 내용에 대한 화자의 정감적 반응(emotional reaction)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어 속성의 위치에 놓여야 하며, *common, illegal, normal, important, impossible* 따위와 같은 인지(recognition)를 나타내는 것이 쓰일 경우에는 외치가 허용되지 않는다(Hudson, 1971: 174; 村田勇三郎, 1982: 268).

- (42) a. He found **having to wait so long** *very frustrating*.  
 b. He found it *very frustrating* **having to wait so long**.
- (43) a. I made **settling the matter** *my prime objective*.  
 b. I made it *my prime objective* **settling the matter**.

(42b)와 달리 (43b)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바로 목적어 속성으로 쓰인 *my prime objective*가 정감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2.4 존재문

다음 두 개의 문에서처럼 어떤 내용을 제시할 때 *there*가 있는 형식(44a)과 *there*가 없는 형식(44b)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44) a. There was a whole box stolen.  
 b. A whole box was stolen.

이 두 개의 문은 모두 「...이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44b)와 같은 문을 존재문(existential

sentences)이라 하며, (44a)는 (44b)에 there를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종의 변형문이다.

영어에서 존재문이 사용되는 것은 (44a)에서처럼 부정관사를 수반한 명사구나 many students, some people, a few friends, several candidates, some water, little water, 또는 한정사를 수반하지 않은 복수 명사, 한정사를 수반하지 않은 불가산 명사 따위의 경우처럼 이들은 모두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P)로서 신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에 두 개의 주어(주어가 존재하게 된다. 즉, be 동사 뒤에 놓인 명사구는 개념적 주어(notional subject) 역할을 하고, 문두에 놓인 there는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 역할을 하게 된다. 6)

- (45) There are three parrots in the cage.
- (46) There was a storm last night.
- (47) There are machines which can extract cholesterol from the blood.
- (48) There's plenty to eat.
- (49) There was another plane hijacked yesterday.
- (50) There is still bribery, there is still corruption. No doubt there always will be.

---

6) there를 일종의 문법적 주어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there로 시작되는 문의 부가의문문에 인칭대명사 대신에 there가 놓이기 때문이다.

There is no one in the room. { is there?  
is he?

둘째, 주어와 술어동사의 도치가 이루어지는 Yes/No 의문문에서 there가 be 동사와 서로 도치된다.

There are some students playing on the ground.

--> Are there some students playing on the ground?

셋째, 다음과 같은 문의 변형 관계에서처럼 there가 보통 명사구가 놓이는 자리로 이동한다.

I believe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at plan.

--> I believe **there** to be some problems in that plan.

cf. I suppose that **he** will win success this time.

--> I suppose **him** to win success this time.

그러면 어째서 there가 없는 (44b) 대신에 (44a)처럼 there가 있는 문 구조를 택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이미 다른데서도 보았듯이 영어에서 비한정 명사구는 신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이 신정보는 문두에 놓이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사전달의 전개상 비한정 명사구가 문두에 놓이는 것은 청자/독자의 기대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문이 어색하거나 때로는 비문법적인 문이 생성되는데, 특히 be가 술어동사일 때 그렇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어에서는 '아무런 뜻도 없는 (dummy) there'를 문두에 배치하여 이로 하여금 신정보에 해당되는 요소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예고하게 된다.

- (51) a. \*Fairies are not.  
 b. There are no fairies.
- (52) a. ?A man is at the door.  
 b. There is a man at the door.
- (53) a. \*Machines which can extract cholesterol from the blood are.  
 b. There are machines which can ... (=47)
- (54) a. \*Plenty to eat is.  
 b. There is plenty to eat. (= 48)

술어동사로서 be 대신에 remain, exist처럼 「존재동사」, 또는 stand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좀더 무게가 있는'(weightier) 동사는 정보 전달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가 쓰이면 there가 없는 문도 가능하다( Downing & Locke, 1992: 258).

- (55) Fairies don't exist.  
 (56) Many problems remain.  
 (57) A man stood at the door.

더욱이 there 구문에 be 이외의 다음과 같은 동사들도 쓰인다. 특히 이러한 문을 제시문(presentative sentences)이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담화적 장면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내어 제시한다는 뜻이다( Quirk *et al.*, 1985: 1408).

verbs of motion: arrive, enter, pass, come, etc.

verbs of inception: emerge, spring up, etc.

verbs of stance: live, remain, stand, lie, etc.

- (58) There **remain** many problems.
- (59) Below the castle there **stretches** a vast plain.
- (60) There **emerged** from the cave a huge brown bear.
- (61) There **followed** an extraordinary scene.
- (62) On the wall there **hangs** a mirror.
- (63)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there **occurred** a revolution in artistic taste.

## 2.5 복합 명사구

복합 명사구(complex noun phrase; 줄여서 CNP)는 명사구가 관계사절, 동격절(that-절, to- 부정사절), 또는 전치사구 따위의 후위 수식을 받는 구조에 대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

$$(64) \text{ CNP }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NP } \bar{S} \\ \text{NP PP} \end{array} \right\}$$

이러한 구조를 가진 복합 명사구는 대개의 경우에 수식받는 NP와 수식하는 S 또는 PP가 서로 인접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히 주어 역할을 하는 복합 명사구에서 S 또는 PP가 문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를 명사구로부터의 외치(extraposition from NP)라고 한다.<sup>7)</sup>

7) 복합 명사구가 주어 위치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목적어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부사어구를 사이에 두고 명사구를 후위 수식하는 구나 절이 외치되기도 한다.



- (65) **The man hasn't arrived yet who was supposed to introduce the speaker.**  
 ((The man who ... the speaker hasn't arrived yet.)
- (66) **But in addition to mere talking, a series of pictures developed which illustrate in a sort of symbolic way, the stages on the path which the young disciple must follow if he would eventually attain "Enlightenment."**  
 ((... a series of pictures which ... "Enlightenment" developed.)
- (67) **Fears mounted that the ship would sink.**  
 ((Fears that the ship would sink mounted.)
- (68)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fine these two terms,** sometimes only adding to the confusion.  
 ((Many attempts to define these two terms have been made, ...)
- (69) **A survey is being made of TV watchers.**  
 ((A survey of TV watchers is being made.)

이처럼 후위 수식하는 절이나 구가 명사구로부터 구문의 문미 위치로 외치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술부에 비해 긴 주어와 문두에 놓이므로써 야기되는 이른바 두부 과대 현상을 피하여 문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Langendoen, 1970: 171).

그런데 (65-69)에서와 같이 후위 수식구조가 명사구로부터 외치되려면 우선 술어동사가 (65-67)의 경우처럼 자동사이거나, (68-69)의 경우처럼 문이 수동형으로 변형됨으로써 타동사가 자동사로

---

We heard the story from his own lips of how he was stranded for days without food.

Finally, in the spring of 1989, Sevilla received word from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Thailand that Seth would be sent to a refugee camp in the Philippines.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쓰인 술어동사는 「도착」이나 「출현」이라는 뜻을 갖거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뜻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村田勇三郎(1982: 261)은 외치가 가능한 동사와 그렇지 않은 동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70) 외치가 가능한 동사: be made(accepted, circulated, believed, mentioned, discovered, found out, put forward, reported): appear, arrive, exist, remain, spread, etc.
- (71) 외치가 불가능한 동사: be discussed(denied, abandoned, destroyed, ignored, questioned, rejected): bother, disappear, etc.

그러므로 다음 각 쌍의 문들 중에서 두 번째 것들은 모두 비문법적이다.

- (72) a. **The claim that the rain caused the accident** was ridiculed by John.  
b. \***The claim** was ridiculed by John **that the rain caused the accident.**
- (73) a. **The assumption that Mary would accept his offer** was questioned by Jack.  
b. **The assumption** was questioned by Jack **that Mary would accept his offer.**
- (74) a. **Attempts to rescue the drowning girl** was soon abandoned.  
b. **Attempts** were soon abandoned **to rescue the drowning girl.**
- (75) a. **A number of proposals for materializing various ideas** were rejected.  
b. **A number of proposals** were rejected **for materializing various ideas.**

(76)의 경우에는 술어동사가 타동사인데도 외치가 허용되고 있

는 것은 이것이 「도착」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76) **Vague rumours** are reaching us **about an attempted coup**, but we've had no official confirmation.

(《Vague rumours about an attempted coup, ... are reaching us.》)

이 이외에도 절의 외치에 비해 전치사구의 외치에는 또 다른 제약이 수반되는 것 같다. 즉, 그 명사구가 비한정적(indefinite)인 것이라야 한다. 비한정적 명사구라는 것은 다음의 (77-79)에서처럼 명사구가 신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한 것을 지시하지 않는 명사구를 뜻한다.

(77) **A heated argument** developed between them **over who should get custody of the children**.

(78) **A mass escape** has taken place **from Alcatraz**.

(79) **An unprecedented attack** was launched by the President **on the Press**.

## 2.5 John is easy to please

다음과 같은 문 (80a-c)를 비교하여 보자.

(80) a. To please John is difficult.

b. It is difficult to please John.

c. John is difficult to please.

이 세 개의 문은 대충 서로 의역 관계(paraphrase)를 갖고 있다. 즉, (80a)는 기본문이고, (80b)는 두부 과대(top-heavy)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부정사절로 실현된 긴 주어절이 문미의 위치로 외치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80b)에서 please의 목적어 John은 Object-to-Subject Raising에 의해 문두의 주어 위치로 이동해서 결국 (80c)와 같은 구조가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80a)는

to please John을 주어로 삼음과 아울러 이를 주제('John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로 삼았을 경우의 문 구조이고, (80b)는 주어절의 외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80c)는 John을 주제('John에 대하여 말하자면')로 삼으면서 difficult to please에 초점을 두기 위한 문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구문에는 awkward, convenient, difficult, easy, hard, impossible, nice, pleasant, tough, tricky, unpleasant 등 「용이함」이나 「안락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다(Quirk *et al.*, 1985: 1229).

- (81) Jack is easy to fool.
- (82) The breads are hard to bake.
- (83) Those darts are tricky to use.
- (84) He's impossible to deal with.
- (85) She's a pleasure to teach.
- (86) Margaret is fun to be with.
- (87) This concept is tough to grasp.

## 2.6 전치와 도치

### 2.6.1 전치

2.1-2.5에서는 문 요소 가운데 특정한 어느 하나가 신정보일 때 그것은 문미에 놓여 문미 초점을 받는 예들을 보았다. 여기서는 문의 목적어, 주어/목적어 속성, 또는 부가어(adjunct) 중 어느 한 요소가 연속적인 문에서 응집 작용으로 인하여 주어 뒤 그 자신이 놓이는 무표의(unmarked) 위치에서 주어 앞 문두의 유표의(marked) 위치로 이동하여 주제가 되도록 함으로써 어순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주제화 전치(topical fronting)<sup>8)</sup>라고 한다.

---

8) topical fronting 이외에 thematic fronting 또는 topicaliza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 (88) **Most of these problems** a computer could take in its stride.
- (89) **This latter topic** we have examined in Chapter 3 and need not reconsider.
- (90) **With this model** you could do it a lot more quickly.
- (91) **The revised edition** I haven't yet read.
- (92) **The others** we're still looking into.

이처럼 문의 어느 한 요소가 주제로서 문두의 주어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Quirk *et al.*, 1985: 1377; Ek & Robot, 1984: 415-16). 첫째, 문과 문의 연속체에서 응집(cohesion)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93) When dawn broke on December 5, a new poster, entitled "The Fifth Modernization," appeared on the wall. "We want no more gods and emperors," Wei wrote. "Democracy, freedom and happiness are the only goals of modernization. **Without this fifth modernization**, the four others are nothing but a newfangled lie."
- (94) The Victorian, no doubt, was as greedy of happiness as the Georgian is, but happiness to him was not in theory the chief end of man. **How far it has become so to a newer generation** I have no means of judging.
- (95) Wei was moved in 1989 to another forced-labor camp, a salt-farm. **Here** his health continued to deteriorate.

(93-95)에서 **without this fifth modernization**과 **how far ... a newer generation**, 그리고 **here**는 이들은 각각 선행하는 문에서로 결부된 것으로서, 주어 앞 문두에 놓인 까닭은 이것이 바로 선행하는 맥락과 연결되어 일종의 응집 장치(cohesive device)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치가 보여 주는 두 번째 효과는 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문미 초점을 둘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치된 요소가 본래의 무표의 자리에 놓여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문중에 놓여야 할 요소가 문미에 놓이게 됨으로써 결국 문미 초점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래의 (96)에서 문두의 주어 앞으로 전치된 *on top of the pile*은 이전의 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면 문두에 놓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문미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a glass of water*는 문미에 놓이지 못하고 오히려 문중에 놓이므로 말미암아 문미 초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96) **On top of the pile** the juggler placed a *glass of water*.

(97) **To him**(=the author) life is a *tragedy* and by his gift of creation he enjoys the catharsis, the purging of pity and terror, which Aristotle tells us is the object of art.

### 2.6.2 전치와 도치

더욱이 문 요소 중 어떤 것은 문의 주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본래 놓일 무표의 위치에서 주어 앞 문두의 위치로 전치됨과 아울러 주어와 술어동사(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와 주어)의 도치(*inversion*)도 이루어져 결국 전치와 도치라는 두 가지 언어 현상이 모두 한 개의 문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98) John ran into the house.

- a. **Into the house** John ran.
- b. **Into the house** ran John.

(99) An elm tree stands in the garden.

- a. **In the garden** an elm tree { stands.  
is.

b. **In the garden** { stands } an elm tree.  
                                   { is }

(98a)와 (99a)는 이전의 진술과 관련하여 문두에 놓인 방향 및 위치 부가어에 대한 담화상의 강조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들은 문의 주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98b)와 (99b)는 부가어를 문의 주제로 삼음과 동시에 문미에 놓인 주어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는 경우의 문 구조이다. 더욱이 동사가 그 의미를 뚜렷이 갖는 경우와 달리, (99a)에서 술어동사 is가 문미에 단독으로 놓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be 자체는 정보량이 적어서 결국 정보 전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 다음과 같이 담화적 맥락이 나타난 경우를 보자.

(100) Keith Sebastian had given me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find his house; he was to meet me there with the money. I drove up the driveway and got out of my car. Just as the car door closed, I heard the main door to the house open.

a. Keith Sebastian } stepped out of the house.  
     Dan Carlyle     }  
     The sheriff     }

b. Out of the house stepped { Keith Sebastian.  
   { Dan Carlyle.  
   { the sheriff.

(100b)에서 Keith Sebastian은 문미에 들 수 없다. 그 까닭은 앞서 언급된 문에서 Keith Sebastian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100a)에서처럼 주어로 등장하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로 등장하리라는 기대에 반하는 Dan Carlyle이나 the sheriff의 경우와 달리) 신정보가 되어 문미 초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 (101) ... **Along with material generosity** went *magnanimity*.
- (102) **To its(= English) vocabulary** were added *thousands of Latin, Scandinavian, and particularly French words*.
- (103) The megalomaniac differs from the narcissist by the fact that he wishes to be powerful rather than charming, and seeks to be feared rather than loved. **To this type** belong *many lunatics and most of the great men in history*.
- (104) The Greeks believed that in the beginning there was only empty space. **In this space** existed *all the things which would become the earth*, but they existed in space without order.

이들 경우에 전치는 주제로서 선행하는 문과의 응집적 효과를 얻으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도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어 부분이 신정보이므로 문미 초점을 주기 위한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 부분이 길고 술부가 짧기 때문에 문미 중점을 두기 위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03-104)의 경우처럼 명사에 선행하는 한정사 *this(/these)*, 또는 그밖에 *that/those*는 유표의 위치에 놓인 주제가 구정보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조동사를 제외한 진행형이나 수동태의 일부인 분사가 전치되고 이와 더불어 주어-술어동사의 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개 분사가 단독으로는 이전의 문과 관계를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이 안정감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므로 분사가 전치될 경우에는 여기에 수반된 다른 요소들도 함께 전치되어야 한다(박근우, 1991: 113). 이러한 구문은 문어영어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어떤 장면에 신정보 역할을 할 새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소개하는데 사용된다.

- (105) **Sitting on the bench** was *Mary Poppins*.
- (106) **Coming up to the stage now** is *this year's winner*



*of the Oscar.*

- (107) **Hidden behind the laurel trees** *was a lovely cottage.*  
 (108) Also **handed in** *was a letter to Mr. Wilson, demanding*  
 17 immediate reforms ....

such나 as가 포함된 주제화 요소로 시작되고 결과절이 뒤따라오는 강의적인 상관 표현(intensifying correlative expression)에서 도치가 이루어진다(Erdmann, 1990: 40).

- (109) **Such** *is the influence of TV* **that** *it can make a person famous overnight.*  
 (110) **So rapid** *is the rate of progress* **that** *advance seems to be following advance on almost monthly basis.*  
 (111) **So long/Such** *a long time* *did he stay inside* **that** *we all wondered what he was doing.*

더욱이 보여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가 비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이전의 문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주며, 따라서 이것은 문두의 위치로 전치되어 주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동시에 주어는 신정보로서 초점을 받게 되므로 문미의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결국 도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 (112) **Far more precarious** *is the role of eight Japanese military observers.*  
 (113) But **worse** *than the hunger and fatigue* *was the terror.*  
 (114) The Sapir-Whorf hypothesis is concerned with the possibility that man's view of his environment may be conditioned by his language. **Less controversial** *is the one-way relationship that operates in the opposite direction -- the effect of society on language, and the way in which environment is reflected in language.*

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정어나, 이에 준하는 이를테면 *seldom*, *rarely*, *little*, *barely*, *never*, *not until* 등이나 *only*처럼 제한적 부사류로 시작되는 문에서는 도치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어순은 부정어가 강조상의 현저성(*prominence*)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부정의 뜻을 가진 요소를 문두 위치로 전치되면 주어와 술어동사 사이에 도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115) **Never** in all my life *have I* heard such nonsense!
- (116) **Only** in Modern English *have they* again been differentiated in spelling by the use of the apostrophe.
- (117) **Little** *does he* know that the police are watching him.
- (118) **Rarely** *have I* seen such a beautiful sunset.
- (119) **Nowhere** else in the house *can you* lie perfectly still with your eyes open and not feel the compulsion to do something.

그러나 (120a, 121a)의 경우와 달리 (120b, 121b)에서처럼 부정어가 술부 전체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Declerck, 1994: 185-86).

- (120) a. **Not until** this morning *did we* discover the truth.
- b. **Not** many hours later *we discovered* the truth.

이러한 차이점은 이들을 풀어 쓴 (120a', 120b')를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 (120) a'. We did not discover the truth until this morning.
- b'. We discovered the truth not many hours later.
- (= a few hours later)

다음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121) a. **On no account** *did he want to go back home.*  
 b. **For no reason** at all *he wanted to go back home.*

(121a)는 그가 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하는 반면, (121b)는 부정어가 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므로 암시하는 내용이 (121a)의 경우와 서로 상반되고 있다.

### 3. 결론

지금까지 영어에서 정보의 차이와 정보량이 어순에 미치는 영향을 극히 제한된 몇 가지 문법범주를 대상으로 고찰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정보에는 청자/독자에게 새로운 정보인 「신정보」와 언어적/상황적 맥락을 통해서 이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구정보」의 두 가지가 있다. 담화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정보들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정보는 대개 문두에 놓여 문의 주제, 즉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며, 반면에 신정보는 문미에 놓여 청자/독자에게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초점(이른바 '문미 초점')을 받도록 한다. 바로 이와같은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의 주제로서 특정한 어느 한 요소가 문두의 주어 앞 위치로 이동하여 선행하는 문에 대하여 일종의 응집 장치(cohesive device)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의 주제와 문미 초점이라는 관점 이외에도 이른바 문미 중점의 원칙이 어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영어 문장에서는 가벼운 요소나 간단한 구조를 가진 요소가 문의 앞부분에 놓이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요소나 복잡한 구조는 문미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문이 두부 과대(top-heavy) 현상을 피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

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문의 어순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능동태와 수동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 뒤로 이동하게 됨은 물론, 기타 여러가지 문법범주에서 어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언어 사용자들의 기분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영어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오염을 방지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박근우(1991), 「영어담화문법」, 한신문화사.
- 한영희(1987), 「英語의 語順과 그 變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村田勇三郎(1982), 「機能英文法」, 東京: 大修館書店.
- Declerck, R. (1994), *A Comprehensive Descriptive Grammar of English*. 東京: 開拓社.
- Downing, A & P. Locke(1992), *A University Course in English Grammar*. New York: Prentice-Hall.
- Ek, J. A. van & N. J. Robot(1984),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Oxford: Basil Blackwell.
- Emonds, J. E.(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Root, Structure-preserving, and Local Transformations*. N. Y.: Academic Press.
- Erdmann, P.(1990), *Discourse and Grammar: Focussing and defocussing in English*.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Huddleston, R.(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son, R. A.(1971), *English Complex Sentence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grammar*.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Langendoen, D. T. (1971).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